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김지경 선임연구위원

### 요약

- 본고는 ‘청년중심 정책추진 구조의 개념적 재구조화’<sup>1)</sup>를 전제하였을 때, 즉시 상기될 수 있는 정책 대상이자 그 간 추진된 청년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청년예술인’에 주목하여, 정부 지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제도 진입의 기준이 청년들에게 하나의 문턱(hurdle)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예술분야 청년들을 청년정책 안에서 적극적으로 포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실증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원자료 중 19세~34세 청년층 응답자 1,667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예술인의 기본 특성과 ‘예술 활동 증명’ 제도의 대표적인 두 가지 기준, 즉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 횟수와 예술 활동수입의 내용을 활동 분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청년예술인 집단 내에서도 어떠한 분야의 청년들이 제도 기준 하에서 취약한가를 살펴보았음. 또한 제도 기준에 부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 모델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였음.
- 실증분석 결과, 청년예술인의 주요 활동분야는 ‘대중음악’ 분야이고, 특히 20대 초반 남성 청년들의 비중이 높음. ‘예술 활동 증명’ 제도의 두 가지 기준인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와 연간 예술 활동수입 120만원 적용 시, 사진과 공예, 무용과 대중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와 연간 예술 활동수입 120만 원 이상 여부에 공통적으로 연령과 소득, 전업활동 여부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경력형성 초기에 있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전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 지원, 그리고 단순히 복지지원 차원에서의 생활지원만이 아닌 경력형성과 연계되는 지원의 필요성을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안)으로 제안하였음.

1) 김지경(2020), 「청년기본법」 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 note 「이슈&정책」 vol.126, 참조.

## 1. 문제제기: 왜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제도에 주목하는가?

### 1. 청년정책 수립·추진의 측면

- ▶ 그 간 청년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일자리 정책으로의 집중은 계속되고 있음.
  - 국무조정실이 집계한 중앙부처 청년정책사업 180여개 중 일자리 관련 사업이 80개이고,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은 5개에 불과함(국무조정실, 2020, 연구요약 그림19.).
- ▶ 단순히 문화예술 정책이 청년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이 대체로 문화 향유자의 관점에서 발굴되고 개발되어 왔다는 점이 문제임.
  - 기존의 청년정책에서는 청년세대가 향유하는 측면에서의 정책 사업발굴에 관심을 가졌을 뿐,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자, 실연자, 기술지원 및 기획자로 일하는 생산자로서의 청년예술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음.
- ▶ 이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비롯하여 복지지원의 측면에서도 문화예술분야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이 잔여적(residual) 성격의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지원 정책에 빈 공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2. '예술인' 지원의 청년 포괄성 측면

- ▶ 2011년 생활고에 시달렸던 시나리오작가 故 최고은 작가 죽음의 의미를 반영하여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후,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재단을 통하여 창작준비금지원과 파견예술인 사업,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예술인'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고 인증하는 제도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제도임.
  -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술인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예술 활동 증명 제도로 증명하는 것임.
- ▶ 생애 자립 및 경력형성의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으로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의 문턱(hurdle)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①하나는 일정 기간 동안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이고 ②다른 하나는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연간 120만 원 이상 여부임<sup>2)</sup>.

- 최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연령별 예술 활동 증명 승인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86.0%로 신청자 10명 중 8.6명이 예술인 증명을 받고 있는데 반해, 19세 이하 38.5%, 20세~29세 78.4%로 청년층 연령대의 승인 비율이 확연히 낮음(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2., p.44 <표 II-9>)<sup>3)</sup>.

- ▶ 최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비롯하여 예술인 대상 지원 사업 다수가 지원 대상을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예술 활동 증명 제도가 예술인 청년들에게 어떠한 성격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청년예술인 지원 정책의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

## II. 실태분석: 청년예술인 실태 vs. ‘예술 활동 증명’의 두 가지 기준

### 1. 청년예술인 특성 및 예술 활동 분야

- ▶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균 연령 28.6세이고 대졸자가 67.4%로 다수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 대졸자 비율이 70.1%로 높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남성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비율을 차지함.
-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절반 이상(58.4%)이며, 10명 중 6명 정도는 단체나 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전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프리랜서로 형태로 활동하고 있음.

2) 예술인 증명의 최저 예술 활동 수입 설정 시, 예술인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수입을 얻는다는 현실, 그리고 불규칙한 수입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 가장 유사한 사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농업인’ 규정 사항, 즉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의 내용이 참조되었음(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2., p.21).

3) 연령별 ‘예술 활동 증명’ 승인 결과(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2., p.44 <표 II-9>).

연령	승인결과	
	미완료(%)	승인(%)
19세 이하	61.5	38.5
20세~29세	21.6	78.4
30세~39세	12.4	87.6
40세~49세	11.6	88.4
50세~59세	11.8	88.2
60세~69세	10.8	89.2
70세 이상	7.3	92.7
전체	14.0	86.0

&lt;표 1&gt; 청년예술인 특성 : 성별 비교

(단위: 명, %, 세)

		전체		남성		여성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1667	(100.0)	821	(49.3)	846	(50.7)
				821	(100.0)	(100.8460)	(100.0)
연령	19세~24세	215	(12.9)	90	(10.9)	125	(14.8)
	25세~29세	746	(44.8)	368	(44.8)	378	(44.7)
	30세~34세	706	(42.4)	363	(44.3)	343	(40.5)
	평균(편차)	28.6	(3.4)	28.8	(3.4)	28.3	(3.4)
학력	고졸	202	(18.1)	208	(25.3)	94	(11.1)
	대졸	1123	(67.4)	530	(64.6)	593	(70.1)
	대학원졸 이상	232	(13.9)	78	(9.5)	154	(18.2)
	모름/무응답	10	(0.6)	5	(0.6)	5	(0.6)
활동 지역	서울	505	(30.3)	251	(30.6)	254	(30.0)
	인천/경기	468	(28.1)	228	(27.8)	240	(28.3)
	경상권	299	(17.9)	151	(18.4)	148	(17.5)
	강원/충청권	179	(10.7)	92	(11.2)	87	(10.3)
	광주/전라권	198	(11.9)	89	(10.8)	109	(12.9)
	모름/무응답	18	(1.1)	10	(1.2)	8	(1.0)
단체/협회 가입여부	가입	955	(57.3)	483	(58.8)	472	(55.8)
	비가입	712	(42.7)	338	(41.2)	374	(44.2)
전업활동 여부	전업	986	(59.1)	508	(61.9)	478	(56.5)
	비전업	681	(40.9)	313	(38.1)	368	(43.5)
프리랜서 여부	종사	1356	(81.3)	663	(80.8)	693	(81.9)
	비종사	311	(18.7)	158	(19.2)	153	(18.1)

자료: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 원자료(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2020.9.23.출력)에서 19세~34세 응답자 데이터(이하&lt;표&gt; 및 &lt;그림&gt; 동일).

## ▶ 청년예술인들의 활동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lt;표 2&gt;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중음악' 분야가 압도적임.

- 대중음악 분야의 집중도는 청년예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즉 성별과 연령, 학력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데,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고, 연령대에서는 25세를 기점으로 19세~24세 이하와 이상 집단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에서, 활동하는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지역보다는 인천/경기지역과 강원/충청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결과에서 2015년 조사 대비 활동분야의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가 대중음악 분야였음을 고려해 볼 때, 그 변화는 청년예술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음<sup>4)</sup>.

4)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활동하는 주 예술분야 상위3개는 미술(25.4%) → 대중음악(14.2%) → 연극(10.7%) 순이고, 특히 대중음악 분야는 2015년 조사 시 6.8% 수준이었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14.2%로 7.4%p 증가(문화체육관광부, 2018.2., 주요결과 요약 p.1).

&lt;표 2&gt; 청년예술인 특성별 주요 예술 활동 분야 : 상위 5순위

(단위: %)

특성 \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전체		대중음악(18.2)	연극(14.2)	무용(12.5)	미술(9.8)	음악(9.7)
성별	남성	대중음악(25.7)	연극(15.8)	영화(10.6)	음악(8.4)	미술(8.2)
	여성	무용(17.8)	연극(12.5)	미술(11.3)	음악(10.9)	대중음악(10.9)
연령	19세~24세	대중음악(30.7)	무용(19.1)	연극(8.8)	국악(8.7)	음악(7.0)
	25세~29세	대중음악(17.4)	연극(16.2)	무용(12.9)	영화(9.4)	음악(8.4)
	30세~34세	대중음악(15.2)	연극(13.6)	미술(13.0)	음악(11.8)	무용(10.1)
학력	고졸	대중음악(33.4)	연극(14.6)	만화(10.6)	영화(8.3)	방송연예(6.0)
	대졸	대중음악(16.6)	연극(15.9)	무용(12.9)	음악(9.3)	영화(9.1)
	대학원졸 이상	미술(22.4)	무용(19.8)	음악(17.7)	국악(10.3)	대중음악(6.9)
활동 지역	서울	대중음악(15.4)	연극(14.7)	무용(11.1)	만화(9.3)	음악(9.3)
	인천/경기	대중음악(21.2)	무용(14.5)	연극(14.3)	영화(8.3)	미술(8.2)
	경상권	연극(16.1)	대중음악(15.1)	미술(13.4)	무용(13.0)	음악(11.7)
	강원/충청권	대중음악(23.5)	무용(13.4)	국악(12.8)	음악(12.8)	연극(8.9)
	광주/전라권	대중음악(18.7)	국악(16.7)	연극(12.6)	음악(11.6)	무용(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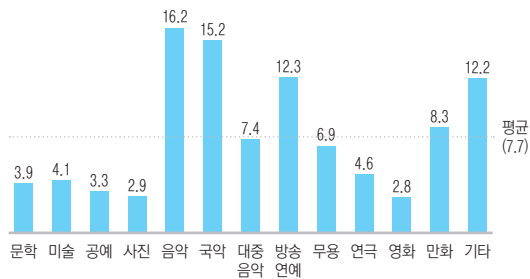
주 : 조사에서는 총 14개(①문학, ②미술(디자인포함), ③공예, ④사진, ⑤건축, ⑥음악, ⑦국악, ⑧대중음악, ⑨방송연예, ⑩무용, ⑪연극, ⑫영화, ⑬만화, ⑭기타) 분야로 측정, 이 중 높은 비율 순으로 5순위 제시.

## 2. '예술 활동 증명' 두 가지 기준에 따른 취약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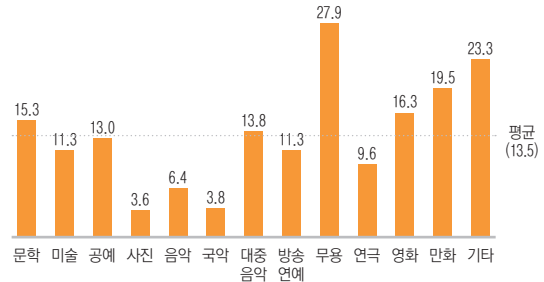
▶ '지난 1년 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 평균 7.7회, 전체 청년예술인의 13.5% 지난 1년 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경험 없음.

- 각 활동분야에서 '지난 1년 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를 살펴보면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평균 7.7회이고, 음악(16.2회)과 국악(15.2회) 그리고 방송연예(12.3회)가 다른 활동분야에 비해 작품 발표나 참여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영화(2.8회)와 사진(2.9회) 분야는 평균 횟수가 가장 적은 분야임.

- 이와 동시에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나 참여가 없었던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청년예술인의 13.5%가 이에 해당하고, 분야별로는 무용분야에서 그 비율(27.9%)이 가장 높으며, 문학(15.3%), 영화(16.3%), 만화(19.5%) 분야가 전체 평균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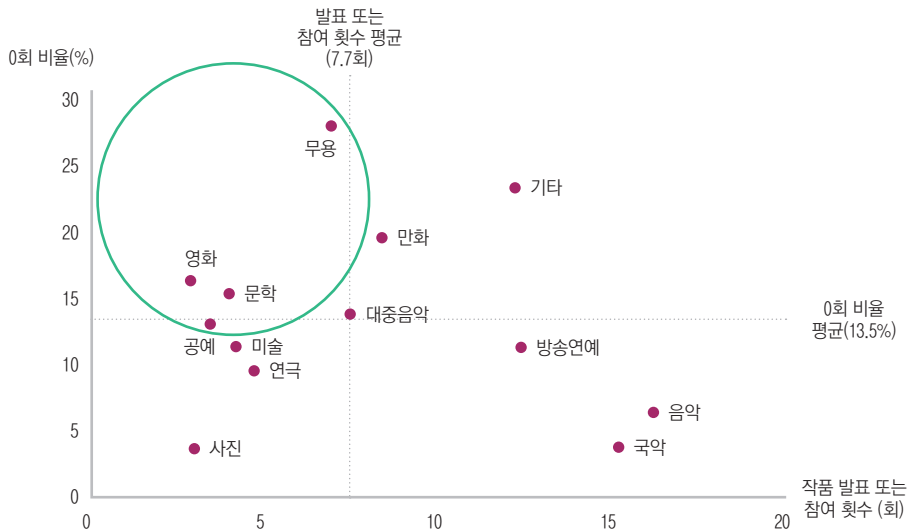
[그림 1]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평균 횟수(회)



[그림 2] 분야별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0회 비율(%)

▶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 기준 측면에서 취약한 예술 활동 분야는 무용, 영화, 문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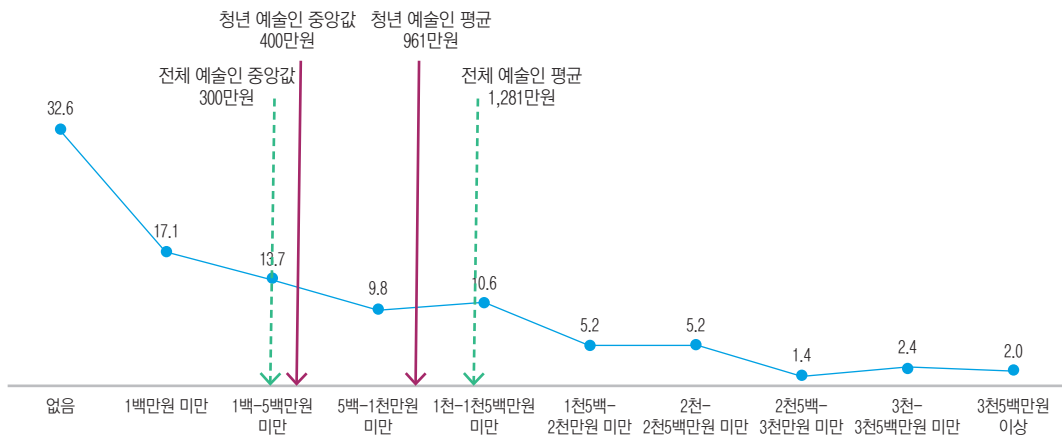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와 그 횟수가 없는, 즉 ‘0’ 인 비율을 교차하여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용, 영화, 문학 분야가 이에 해당함.



[그림 3] 지난 1년 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 측면에서의 취약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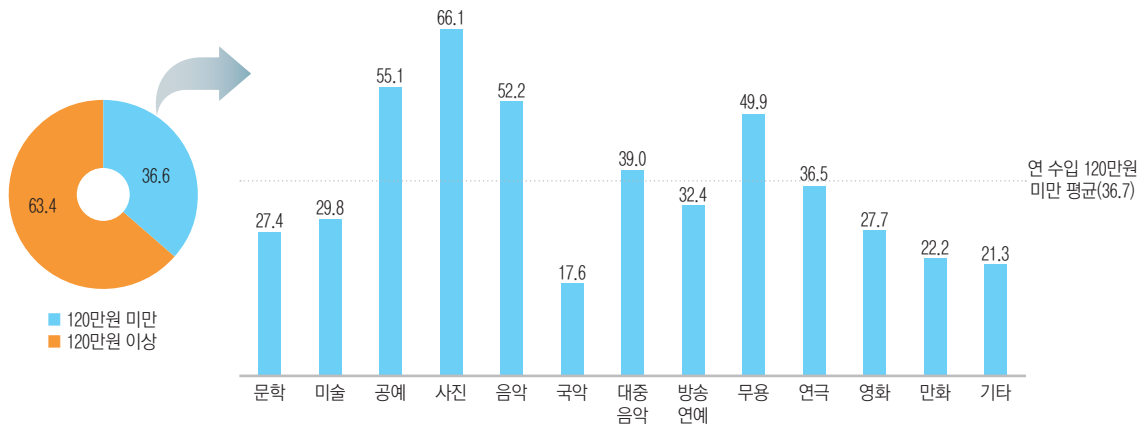
▶ 청년예술인의 ‘지난 1년간 개인 예술 활동’ 수입 연평균 961만원, 32.6%의 청년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따른 수입이 없음.

- [그림 4]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예술인들이 지난 1년 간 개인 수입 중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은 연평균 961만원으로 전체 예술인 평균 1,281만원(문화체육관광부, 2018, p.27) 보다 32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32.6%가 예술 활동 수입이 없고 이들을 포함하여 절반가량(49.7%)이 연평균 1백만 원 미만의 수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청년예술인 연간 개인 예술 활동 수입 분포

- ▶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이 되는 예술 활동 연간 수입 12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청년예술인의 63.4%, 이에 미달하는 비율은 36.6%이고, 사진과 공예, 음악과 무용분야의 경우 평균 미달 비율보다 높은 수준의 미달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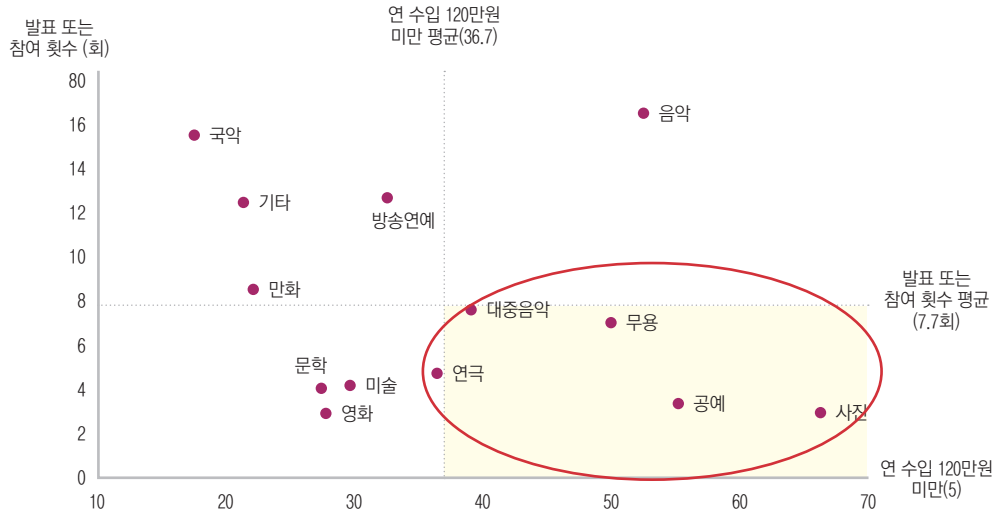


[그림 5] 지난 1년 간 개인 예술 활동 수입 120만원 미만 비율

- ▶ ‘예술 활동 증명’의 두 가지 기준인 작품발표 또는 참여 횟수와 연 수입 120만원 기준 대비 상대적 취약 분야는 사진, 공예, 무용, 대중음악임.

-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가 평균(7.7회)보다 적고, 예술 활동을 통한 연수입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비율이 평균(36.7%) 보다 높은 데에 위치하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인데, [그림 6]의 사진, 공예, 무용, 대중음악이 이에 해당함.

- 결과에 비추어볼 때, 이들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들이 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에 부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그림 6]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횟수 및 예술 활동 수입 기준 대비 취약 분야

### 3. '예술 활동 증명'의 두 가지 기준: 어떤 특성이 기준 부합 가능성을 높이는가?

#### ▶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 횟수 영향 요인

- 다중회귀분석모델을 통한 청년예술인의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 횟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겸업보다는 전업으로 활동하는 청년이, 그리고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예술 작품 발표 및 참여 횟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대중음악 분야에 비해 음악과 방송연예 분야의 경우 작품 발표 및 참여 횟수가 많고, 문학, 미술, 연극, 영화 분야는 대중음악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lt;표 3&gt;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 및 연 수입 120만원 이상여부 결정요인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 횟수 영향 요인 (OLS Model)	연간 예술 활동수입 120만 원 이상 여부 영향 요인 (Logistic Regression Model)	
		Coef.(S.E.)	Coef.(S.E.)	Odds Ratio
성별(남자)		1.989(0.586)**	0.097(0.117)	1.102
연령		0.178(0.088)*	0.080(0.018)***	1.084
학력 (ref:대졸)	고졸	0.631(0.788)	-0.441(0.154)**	0.643
	대학원졸 이상	0.673(0.861)	-0.247(0.168)	0.781
주요활동 분야 (ref: 대중음악)	문학	-3.838(1.568)*	0.602(0.312)	1.826
	미술	-3.013(1.060)**	0.204(0.211)	1.227
	음악	7.512(0.961)***	-0.110(0.186)	0.896
	방송연예	5.060(1.459)**	0.538(0.299)	1.712
	무용	1.287(1.060)	-0.119(0.205)	0.887
	연극	-2.072(0.990)*	0.244(0.194)	1.276
	영화	-4.766(1.175)***	0.661(0.240)**	1.936
	만화 · 기타	2.137(1.194)	1.127(0.265)***	3.086
협회 가입여부(가입)		0.312(0.589)	0.633(0.116)***	1.883
전업 여부(전업)		2.594(0.576)***	0.649(0.112)***	1.913
지역(서울)		0.104(0.624)	-0.406(0.122)**	0.666
log가구소득		0.320(0.086)***	-	-
학습/훈련 지출		0.000(0.001)	0.001(0.000)**	1.001
활동 지출		0.000(0.001)	0.001(0.000)***	1.001
상수		-2.867(2.631)	-2.683(0.520)***	0.068
F		14.36***	-	-
n		1,667	1,667	
Log likelihood		-	-981.255	
LR chi2		-	208.85***	
Pseudo R2		0.126	0.096	

\*\*\*  $p < .001$ , \*\*  $p < .01$ , \*  $p < .05$ 

## ▶ 연간 예술 활동수입 120만 원 이상 여부 영향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통한 청년예술인의 '지난 1년간 개인 예술 활동 수입'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학습 및 훈련에 지출되는 비용과 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예술 활동수입이 연간 120만 원 이상 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대졸보다는 고졸이 그 가능성이 낮고 대중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 비해 영화와 만화·기타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그 가능성이 높고, 협회에 가입한 이들이 비가입한 청년들에 비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예술 활동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겸업보다는 전업으로 활동하는 청년,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여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 비해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 두 가지 기준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결과와 시사점

-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통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라도 부합하려면 연령수준이 높아야 그 가능성이 높아짐.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기본적으로 연령이라는 변수로 대리되는 생애 시간을 통해 경력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초기 경력형성 단계에 있는 예술분야 청년들의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는 최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현행 지원 제도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함.
- 가구의 소득수준과 전업 활동은 청년예술인들이 예술작품을 발표하고 참여하는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예술 활동을 위한 학습과 훈련, 활동을 위한 지출 비용으로 대리되는 청년예술인들의 경제적 여건 수준 또한 예술 활동수입 기준에의 부합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됨.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경제적 여건이 전제가 되지 않은 청년예술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예술인 지원제도에 편입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함.
- 청년예술인이 활동 비율이 높은 대중음악 분야와 비교했을 때, 음악과 방송연예분야는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 횟수 기준으로 예술인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영화와 만화·기타 분야는 예술 활동수입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들 분야를 제외한 여타 분야의 청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느 하나의 기준에도 부합할 가능성이 낮지 않음을 시사함.

### Ⅲ. 주요 결과의 요약 및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제언

- ▶ 청년예술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대중음악이며, 특히 20대 초반, 남성, 고졸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활동 비율을 보임. 2015년 이래로 증가한 대중음악 분야예술인 활동비율의 증가는 이들이 주도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 청년예술인들의 연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는 평균 7.7회로, 연간 1회 이상 정도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가 각 분야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 기준이 청년들에게 예술인으로 인정받는데 있어 하나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단, 연간 예술작품 발표나 참여를 못하는 비율이 13.5%에 이르고, 분야별 편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분야, 예컨대 무용, 영화, 문학 분야의 청년예술인들은 이 기준으로 법률상 규정된 예술 활동 증명을 받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 청년예술인의 연간 예술 활동수입은 평균 961만원으로 전체 예술인 평균 1,281만원 보다 320만 원 정도 낮고, 전체의 32.6%가 예술 활동수입이 전혀 없으며 절반가량인 49.7%가 연간 1백만 원 미만의 수입을 가짐. 청년예술인 전체의 36.6%가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인 연간 120만원에 미달한다는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년예술인 10명 중 4명 정도는 ‘예술 활동 증명’을 예술 활동 수입보다는 예술작품 발표나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인증 받고자 할 가능성이 높음.
- ▶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와 연간 예술 활동수입 120만 원 이상이라는 ‘예술 활동 증명’ 제도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했을 때, 활동 분야 중 사진, 공예, 무용, 대중음악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로 드러남.
  - 청년예술인 활동 비율이 높은 대중음악 분야를 비롯하여 이들 분야에서 청년예술인들이 예술작품을 발표하는 변화된

방식과 형태 등이 실적 인정 기준에 고려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기준 보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 어떠한 기준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초기 경력 형성 단계에 있는 청년예술인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 예술인으로 증명되고, 그 증명을 전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사업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음.

- 문화예술분야 정책뿐만 아니라, 최근의 확대된 고용보험 지원과 같이 예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서 지원 대상을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술인'으로 전제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초기 경력형성 단계에 있는 예술분야 청년들을 중심으로 '예술활동 증명' 제도에 연계된 청년특화 지원제도 마련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 ▶ 청년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만큼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를 하고, 그에 따라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데에는 가구소득, 학습과 훈련비용, 활동비용과 같은 경제적 자원과 더불어 전업으로 대리되는 시간 자원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현행 제도의 보완 또는 청년특화 지원 제도 도입 시, 단순히 생활비 보조나 수당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경력형성이 될 수 있는 활동이 연계된 결합서비스 지원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함.

####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2020.7).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8.12.).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2.). 예술 활동 증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https://mdis.kostat.go.kr/index.do>),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원자료(검색 및 데이터 인출: 202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검색일: 2020.12.23.).